

왕조시대의 도참설과 참요

위서(僞書)의 사회사 — 2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역사적 격변기에는 늘상 각종 도참설과 참요가 인구에 널리 회자했다.

특히 왕조교체기에는 그 정도가 심했다. 고려건국에는 도참사상의 영향이 컸다.

‘고경참’이란 거울을 통해 왕건의 등극이 예언됐는데, 훗날에는 거울 속의 참문 가운데

일부가 문제돼 정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조선건국에서는 ‘십팔자위왕’ 설이 꾸준히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는 이씨가 왕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파자형식의 도참설이었다.

왕조가 바뀌거나 민란 또는 혁명기에는 어김없이 각종 도참설과 참요(讖謠), 그리고 비기(秘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민심을 크게 뒤집고 결국은 새로운 왕조의 창업이나 정변에 이용됐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의자왕 20년(660)에 귀신이 나타나서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고 외친 다음 땅속으로 들어가므로 임금이 그 자리를 파보게 했더니 석자쯤 들어간 곳에 거북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등에 “백제는 둥근달이요, 신라는 초승달 같다(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는 참요의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또 신라 최치원이 지었다는 “계림은 누른 잎이요, 곡령은 푸른 소나무(鷄林黃葉 鶴嶺青松)”라는 참구도 신라(계림)의 멸망과 고려(곡령)의 건국을 미리 예견한 노래로 참요의 하나다.

왕조시기의 도참설

왕건의 고려 건국에는 도참사상의 뿌리가 깊다. ‘고경참’ (古鏡讖)에 얽힌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이 ‘고경참’이란 거울을 중국인 왕창근(王昌瑾)에게 팔았는데, 그가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그것을 궁예에게 바쳤다. 궁예는 거울 속의 참문(讖文)을 문사들에게 풀도록 했는데, 문사들은 그것이 왕건의 등극과 삼국통일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궁예의 그것으로 둘러댔다 한다. 후일 왕건 추대세력은 왕건의 즉위를 권고하면서 “왕창근이 얻은 경문이 저와 같은데 어찌 가만히 있다가 독부(獨夫 : 신인의 미움을 받은 자)의 손에 죽음을 당하려 하십니까?”라면서 추대했다 한다. 왕건의 추대자들이 이 경문을 조작했을지 모른다. 이 참문에는 왕실의 운수가 12대 360년으로 돼 있어 늘상 왕실을 불안케 하고 후일 정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고려조에는 도참사상이 극성을 부렸다. 왕건의 이른바 <훈요십조>는 나중에 별도로 그 위작설을 다루겠지만, 도선(道詵)의 ‘산수순역설’ (山水順逆說)에 따라 사찰을 짓도록 했다. 제11대 문종에서 16대 예종에 이르는 고려의 전성기에도 도참사상이 전성을 이뤘다. 즉 송도(현 개성)는 지기(地氣)가 오래돼 쇠퇴했으니 새로운 길지(吉地)를 택해 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었다.

예종은 도참사상에 경도돼 《해동비록(海東秘錄)》이라는 도참서를 편찬케 하고, 송도의 기력이 쇠했다며 서경의 을밀대 부근에 새 궁궐 용언궁(龍堰宮)을 짓게 했다.

인종 때 이자겸은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 즉 이씨가 왕이 된다는 참서를 믿고 왕위를 노리다가 귀양가고, 묘청 일파도 “개경기쇠 서경왕기(開京氣衰 西京旺氣)”를 내세워 서경천도를 도모하다가 김부식 세력에 토벌당했다.

무인정권 시기의 권신 이익민(李義旼)은 ‘고경참’의 참서를 믿고 “고려 왕조가 12대에 끝나고 새로 이씨가 발흥하리라(龍孫十二盡更有十八子)”는 요언을 퍼뜨리며 경주의 반란군과 밀통했다. 몽고군에 끝까지 항쟁에 나섰던 삼별초군은 “고려는 12대에 끊기고 남쪽에 수도를 짓게 된다(龍孫十二盡 向南作帝京)”는 술사 안방열(安邦悅)의 도참에 따라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갔다.

조선왕조의 건국 과정에서도 각종 도참설과 비기가 난무했다. 조선의 건국을 전후해 ‘십팔자위왕’ 설이 꾸준히 입에 오르내리고 ‘구변진단지도’ (九變震檀之圖)라는 비기도참설도 나왔다. 이 비기도참은 서운관에 소장된 것이었다. ‘구변진단지도’란 동방에서 일어나는 아홉 차례의 변혁 가운데 이(李)씨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종반정을 통해 등장해 개혁정치를 펴다가 수구세력에 물리게 된 조광조는 대궐 동산에 ‘주肖위왕’ (走肖爲王 : 趙씨가 왕이 된다)의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참변을 겪게 되고, 전주에서 역모에 몰려 때죽음을 당한 정여립은 ‘목자망 전음홍’ (木子亡 奠邑興 :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의 참설을 믿어 거사를 도모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회변혁에 이용된 참요

고려사회에서는 각종 참요가 나돌아 민심혼란과 정변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참요는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미래에 대해 좋거나 나쁜 것을 미리 예

언하는 뜻에서 짓고 불렀다. 역시 참위설의 영향에서 나타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백제는 등근달이요, 신라는 초승달 같다”는 백제 멸망의 참요나 최치원의 “케림은 푸른 빛이요, 곡령은 푸른 소나무”라는, 신라 멸망을 예언한 참요는 엄청난 전과력을 갖고 민심을 동요시켰다.

고려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시에 군졸들이 불렀다는 노래에 <목자요(木子謠)>란 참요가 있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목자득국(木子得國)’의 네 글자다. 풀어보면 “나무 아들 나라 얻네”가 된다. 일설에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어 중 신돈이 비녀를 왕에게 바쳐 아들을 낳으니 후일 우왕이다. 백성들 눈에는 왕의 혈육이 아닌 신돈의 혈육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타인의 자식이 나라를 얻었다는 뜻과 함께, 이씨가 나라를 얻게 된다는 뜻이 있는 참요다. 여기서 ‘나무 아들’은 ‘남의 아들’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다.

조선초기 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閻)이 암살될 것을 예언하는 <남산요(南山謠)>라는 참요가 나돌았다.

저 남산에 가 돌을 깨니
정(釘)이 남음이 없네
(彼南山往伐石 釘無餘)

그러니까 왕위계승 문제로 골육상쟁해 정씨와 남씨 두 사람이 죽을 것을 내다보는 참요다. 남산(南山)과 남은(南閻)은 남음(南音)이 같으며, 정(釘)과 정(鄭)의 음이 같고, 무여(無餘)도 우리말로 ‘남음이 없다’가 되니 역시 남은(南閻)은 음(音)이 서로 일치한다.

관변에서 조작한 참요도 있어

조선왕조가 점차 부패타락하면서 숙종 때는 <미나리요>가 백성들 사이에 회자했다. 인덕이 온후한 인현왕후 민비가 쫓겨나고 간사한 장희빈이 권세를 잡으면서, 인현왕후를 동정해 나타난 참요다. 노랫말에는 몇 종류가 있었으니,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메꽃 같은 우리 딸이 시집 3년 살더니 미나리꽃이 다 피었네”가 하나요, 다른 것은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가 그것이다. 여기서 ‘장다리’는 장희빈

이고, ‘미나리’는 민왕후를 일컫는다.

참요는 민란이나 정변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동학혁명 때는 <녹두새요>가 유행했다. 그 가사를 들어보자.

아랫녘 옷넛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두류박 딱딱 우여.

여기서 새는 민중이고, 두류박은 두류산(頭流山)을 말하며, 녹두새는 전봉준의 별명이고, 딱딱 우여는 ‘날아가라’는 뜻이다. ‘전주’는 전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이는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혁명이 실패하기를 기대하면서 관변에서 만든 참요다.

그 무렵에 <봉준요>라는 참요도 나돌았다.

봉준아 봉준아 전봉준아
양에는 양철을 짚어지고
놀이 갯강이 패전했네.

‘놀이’는 논산이요, ‘갯강이’는 강경(江景)을 가리키는 토박이말이니 전봉준이 싸움에서 지기를 바라는, 역시 관변에서 조작한 참요다.

이와는 달리 민중의 의지를 담은 민요(民謠)도 널리 유행했다. <파랑새요>가 그것이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너어이 나왔느냐
솔잎댓잎 푸릇푸릇키로
봄철인가 나왔더니
백설이 펼 펼 훑날린다
저 건너 저 청송녹죽(靑松綠竹)이 날속었네.

여기서 파랑새는 봉기한 동학군을 가리키며, 이 동학군이 청송녹죽을 보고 봄철인줄 알고 나왔으나 실은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혁명의 시기가 성숙치도 못했는데 거사했음을 상징한다. 동학혁명 후 다음과 같은 참요도 나돌았다.

가보세 가보세



참요와 비기는 왕조 교체기와 같은 역사적 격변기에 주로 나타났다.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것부터 정적을 암살하기 위해 눈가리개용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민심을 흥흥하게 했다. 사진은 신라 멸망과 고려 건국을 참요로 예언했던 최치원의 모습.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간다.

동학혁명이 발단된 것은 고종 31년으로 갑오년(甲午年)이며, 그 여파가 진압되기에는 2~3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가보세’는 갑오세(甲午歲), ‘을미적’은 을미(乙未), ‘병신’은 병신년(丙申年)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학혁명이 갑오·을미·병신의 3년은 걸릴 것을 예언한 참요로 볼 수 있다.●